

2016. 10. 31. ~ 11. 06.

주간

109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양념 · 엽근채소 관측
- 과일 관측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삼진지에프 '캔김치' 중국 수출길 올랐다
- 충남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 활기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도 특허기술 청년사업기에 기술이전 협약체결
- 전남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성과 특특

정책동향

- 전남도, 버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전국 최다
- 서울국제식품산업전서 전남 농식품 우수성 알려

사업신청 및 홍보

-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해피굿팜 운영 확대
- 복잡한 소의 유전자, 과학의 눈으로 보여드려요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전반에는 낮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예보 : 시설작물 노균병, 흰가루병, 총채벌레류, 진딧물, 응애류, 담배가루이, 작은뿌리파리,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등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양념채소 (건고추·깎마늘·양파·대파) 관측
- ▶ 엽근채소 (배추·무·감자·당근·양배추) 관측
- ▶ 과일 (사과·배·감귤·단감·포도) 관측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4

- ▶ 여수시, 2016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 ▶ 나주시, 농업용미생물 현장에 직접 배달해드려요
- ▶ 곡성군, '체리' 재배 경쟁력 확인
- ▶ 고흥군, 고흥유자 소비촉진 홍보 판촉 활동나서
- ▶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만감류 '레드향' 집중 육성
- ▶ 영광군, 귀농·귀촌인 성공정착을 위한 기초농업 기술교육 추진
- ▶ 완도군, 고금면 친환경 유자 맛과 향 탁월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삼진지에프 '캔김치' 중국 수출길 올랐다
- ▶ 충남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 활기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3

- ▶ 동계 애호박 수경재배에 적합한 질산태 질소 농도
-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장기 저장 방법
- ▶ NB와 PB사과의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수취가격 비교
- ▶ 약용식물 부산물의 사료가치 및 항산화 특성
- ▶ 전남농기원, 연구사 2명 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 ▶ 전남도 특허기술 청년사업가에 기술이전 협약체결
- ▶ 전남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 성과 특특
- ▶ 식물성 에스트로젠 고함유 콩잎 생산기술 개발
- ▶ 국민채소의 이유 있는 변신! 기능성 배추와 컬러 무 개발
- ▶ 벼멸구 저항성 유전자 BPH18 밝혀
- ▶ 한번 뿌리면 3~4개월 효과 지속! 펠릿형 미생물제 개발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7

- ▶ 스마트농업전문가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39

- ▶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사료용 쌀 공급 확대
- ▶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전국 최다
- ▶ 서울국제식품산업전서 전남 농식품 우수성 알려
- ▶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 해외 농업정보 43

- ▶ 베트남, 농기계시장 현황
- ▶ 필리핀, 건강식품 수요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1.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미국 대선에 앞서 포지션 스퀘어링으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이번 주 있을 미국 대선 및 USDA의 월간 수급 보고서 발표에 앞선 투자자금매수로 상승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 또한 이번 주 있을 미국 대선에 앞선 투자자금매수로 상승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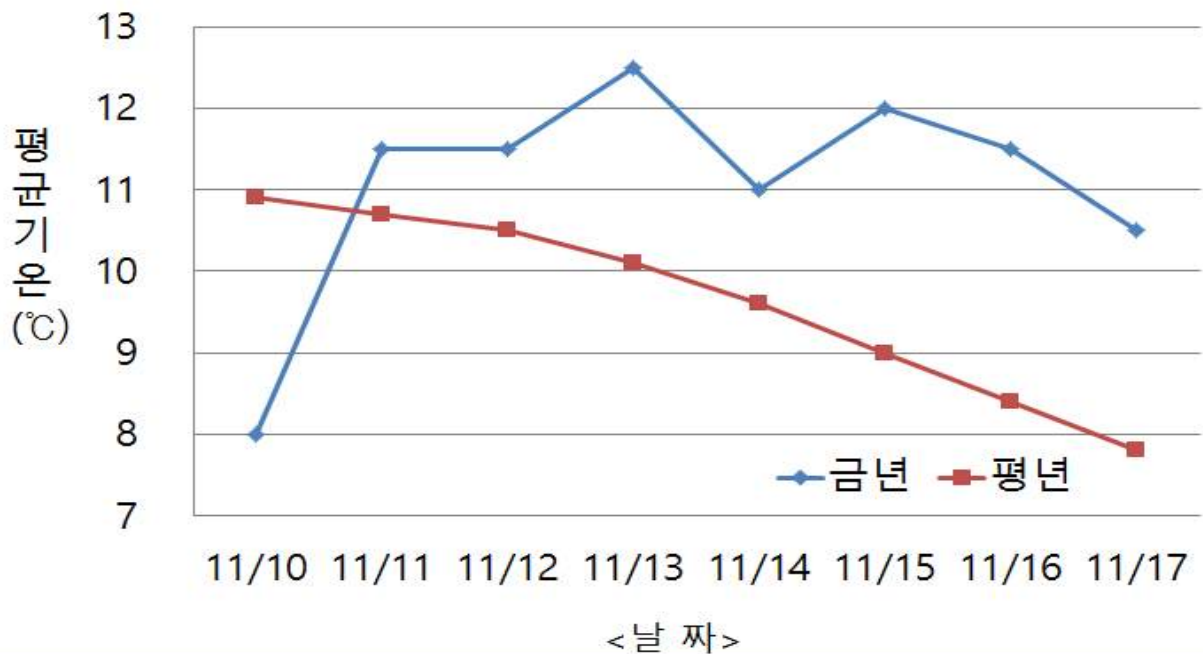
- ▶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해피굿팜 운영 확대
- ▶ 복잡한 소의 유전자, 과학의 눈으로 보여드려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1.1	9.6	1.4	16.4	14.9	1.5	5.8	5.3	0.5	1.7
11. 10.(목)	8.0	10.9	-2.9	14.0	16.2	-2.2	2.0	6.5	-4.5	2.1
11. 11.(금)	11.5	10.7	0.8	16.0	16.0	0.0	7.0	6.3	0.7	2.1
11. 12.(토)	11.5	10.5	1.0	18.0	15.7	2.3	5.0	6.1	-1.1	1.9
11. 13.(일)	12.5	10.1	2.4	17.0	15.4	1.6	8.0	5.8	2.2	1.6
11. 14.(월)	11.0	9.6	1.4	17.0	14.9	2.1	5.0	5.2	-0.2	1.6
11. 15.(화)	12.0	9.0	3.0	18.0	14.3	3.7	6.0	4.6	1.4	1.4
11. 16.(수)	11.5	8.4	3.1	16.0	13.6	2.4	7.0	4.0	3.0	1.3
11. 17.(목)	10.5	7.8	2.7	15.0	13.1	1.9	6.0	3.5	2.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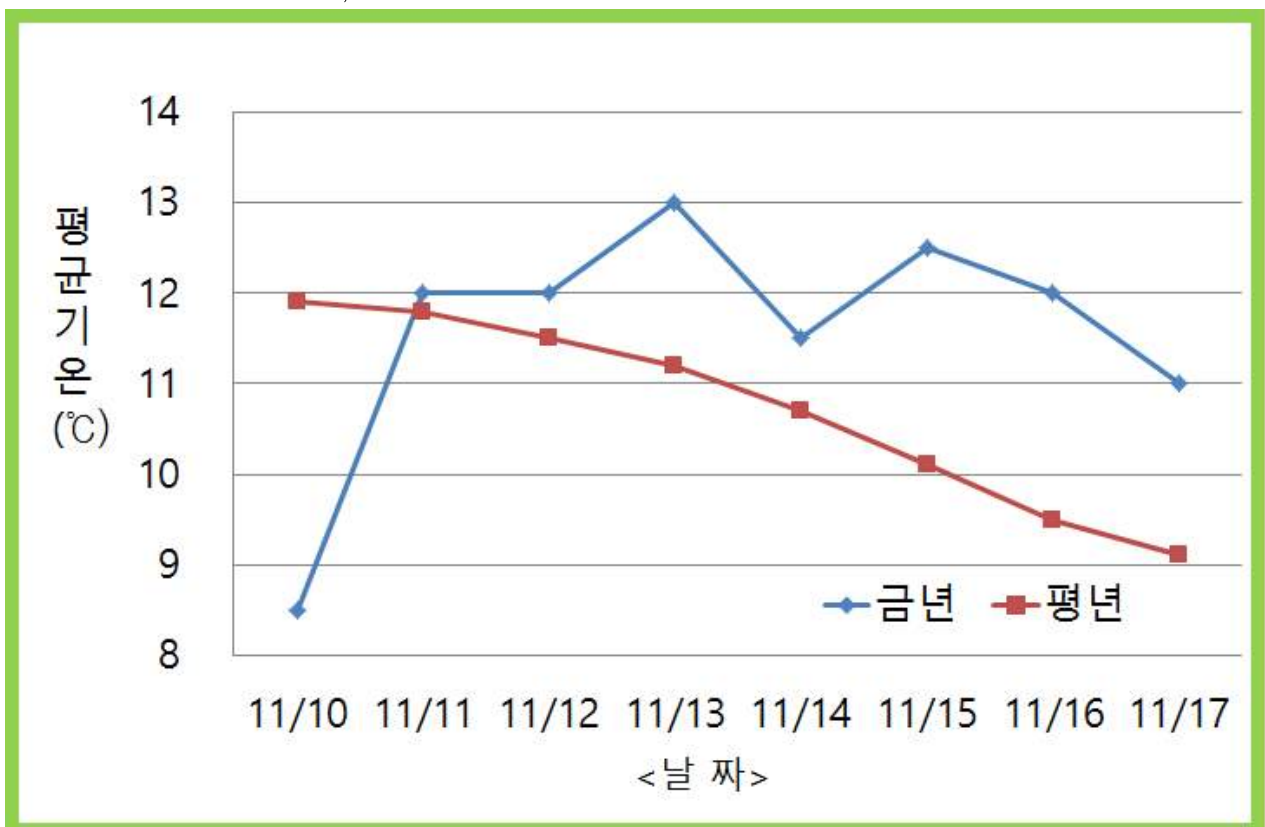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1.6	10.7	0.8	16.1	15.5	0.6	7.0	7.0	0.1	1.3
11. 10.(목)	8.5	11.9	-3.4	14.0	16.6	-2.6	3.0	8.1	-5.1	1.7
11. 11.(금)	12.0	11.8	0.2	16.0	16.5	-0.5	8.0	8.0	0.0	1.7
11. 12.(토)	12.0	11.5	0.5	17.0	16.2	0.8	7.0	7.8	-0.8	1.5
11. 13.(일)	13.0	11.2	1.8	16.0	16.0	0.0	10.0	7.5	2.5	1.0
11. 14.(월)	11.5	10.7	0.8	17.0	15.5	1.5	6.0	6.9	-0.9	0.9
11. 15.(화)	12.5	10.1	2.4	18.0	15.0	3.0	7.0	6.3	0.7	1.1
11. 16.(수)	12.0	9.5	2.5	16.0	14.4	1.6	8.0	5.7	2.3	1.1
11. 17.(목)	11.0	9.1	1.9	15.0	13.9	1.1	7.0	5.3	1.7	1.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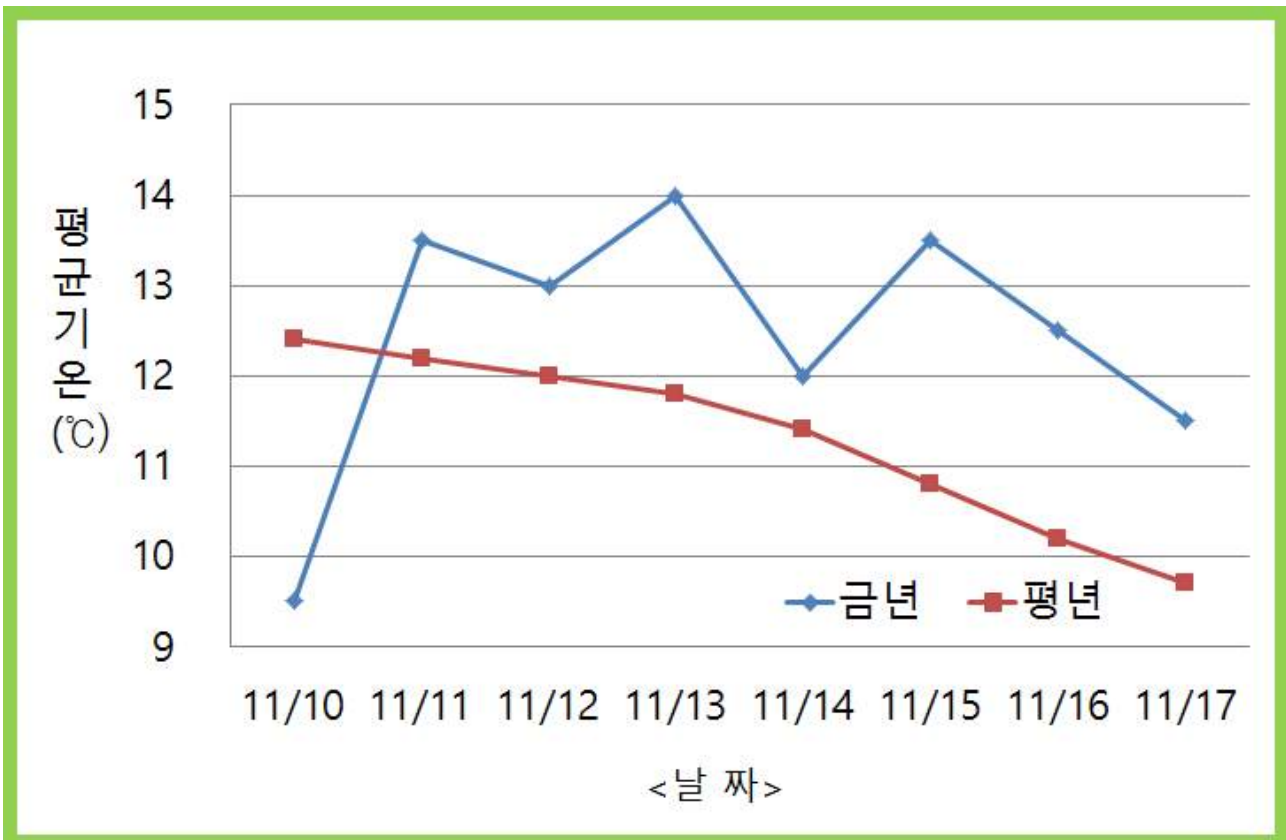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2.4	11.3	1.1	16.4	15.1	1.3	8.5	8.2	0.3	1.1
11. 10.(목)	9.5	12.4	-2.9	14.0	16.0	-2.0	5.0	9.3	-4.3	1.6
11. 11.(금)	13.5	12.2	1.3	17.0	15.8	1.2	10.0	9.2	0.8	1.6
11. 12.(토)	13.0	12.0	1.0	17.0	15.6	1.4	9.0	8.9	0.1	1.5
11. 13.(일)	14.0	11.8	2.2	17.0	15.5	1.5	11.0	8.7	2.3	1.1
11. 14.(월)	12.0	11.4	0.6	17.0	15.2	1.8	7.0	8.3	-1.3	0.9
11. 15.(화)	13.5	10.8	2.7	18.0	14.6	3.4	9.0	7.7	1.3	0.5
11. 16.(수)	12.5	10.2	2.3	16.0	14.1	1.9	9.0	7.0	2.0	0.6
11. 17.(목)	11.5	9.7	1.8	15.0	13.6	1.4	8.0	6.5	1.5	1.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6. 11. 01. ~ 11. 30.)

농촌진흥청은 오이·토마토·고추·딸기 등 시설재배 작물에 발생하는 노균병, 흰가루병, 바이러스병, 총채벌레, 진딧물, 응애류 등의 병해충에 대해 예보를 발표하오니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보 : 시설작물 노균병, 흰가루병 등

- 적절한 보온과 환기를 실시하여 시설 내의 온·습도가 알맞게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초기 밀도를 낮추고 확산을 방지해야 함

□ 예보 : 시설작물 총채벌레류, 진딧물, 응애류, 담배가루이, 작은뿌리파리 등

- 시설에 발생하는 해충은 연중 발생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발견이 어려우므로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를 입기 쉽고 바이러스병 등을 전염시키므로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

□ 예보 : 토마토·고추 등의 토마토황화잎말림병, 토마토반점위조병

- 토마토·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병원균을 매개하는 총채벌레, 담배가루이를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병에 걸린 식물체는 즉시 제거

□ 예보 : 딸기세균모무늬병,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검역병해충)

- 병에 걸린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병이 발생한 포장에서 증식용 모주 또는 삼수 채취 금지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양념채소 (건고추 · 깐마늘 · 양파 · 대파) 관측

- **가격전망** : 건고추 도매가격 지난달보다 낮고, 마늘·양파는 비슷할 전망
 - 건고추 2016년산 생산량은 감소하나, 이월재고량이 많아 지난달 대비 낮은 5,700원/600g 전망
 - 깐마늘은 재고량이 적어 평년보다 높으나, TRQ 도입 및 방출로 지난달과 비슷한 7,000~7,100원/kg 전망
 - 양파는 2016년산 재고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으나, 지난달과 비슷한 950원/kg 전망
 - 대파는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와 지난달보다 높은 2,100원/kg 전망
- **생산전망** :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 지난해 대비 증가, 양파는 감소 전망
 - 건고추 2016년산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지난해 대비 10~15% 감소 전망, 마늘 2017년산 재배의향은 2016년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7~11% 증가 전망
 - 양파 2017년산 재배의향은 2016년산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4~8% 감소 전망, 대파 11월~내년 1월 정식의향은 최근 대파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2% 증가 전망
- 양념채소 생산 지난해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	11월~내년 1월 대파 정식의향
전년대비	-15.4 ~ -9.7	7.3 ~ 10.7	-7.5 ~ -4.1	2.1
평년대비	-17.2 ~ -11.8	-10.3 ~ -7.4	-8.7 ~ -5.3	-

엽근채소 (배추·무·감자·당근·양배추) 관측

□ 가격전망 : 김장철 배추·무 가격 가을 작형 본격 출하로 10월보다 하락 전망

○ 배추·무 김장철 가격은 가을 작형 본격 출하로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높으나, 지난달보다 낮을 전망

- 11월 배추 가격은 10월보다 낮은 6,500원/10kg, 무는 14,000원/18kg 내외 전망

- 12월 배추·무 가격도 지난달보다 낮으나, 향후 기상변화에 따라 출하량 및 가격은 변동 가능

○ 당근·양배추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각각 52,000원/20kg, 12,000원/8kg 내외 전망

○ 감자(수미)는 고랭지감자 작황부진으로 작년보다 높은 25,000원/20kg 내외 전망

□ 김장철 소비자 조사 : 김장철 배추·무 소비량은 작년보다 감소 전망

○ 금년 김장철 가구당(4인 기준) 소비량은 배추가 22.7포기, 무가 8.7개로 각각 작년(24.2포기, 9.3개)보다 감소

○ 배추 형태별 선호 비중은 절임배추가 51%로 작년(49%)보다 2% 상승

□ 차기 작형 : 겨울배추·월동무·겨울당근·감자 면적은 감소, 겨울양배추는 증가

○ 겨울 작형 재배면적은 배추·무·당근·감자가 지난해보다 2~16% 감소하나, 양배추는 3% 증가

○ 겨울 작형 생육은 태풍, 잦은 강우 등으로 작년보다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

과일 (사과·배·감귤·단감·포도) 관측

□ 생산량 전망 : 올해 감귤 제외한 과일 생산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와 폭염 피해로 지난해보다 5% 적은 55만 1천톤 전망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줄어 지난해보다 2% 감소한 25만 6천톤 전망
- 감귤(노지온주) 생산량은 착과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1% 많은 52만 7천톤 전망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11% 적은 15만 6천톤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폭염 피해로 지난해보다 16% 적은 21만 8천톤 전망

□ 저장량 전망 : 올해 사과·배 저장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사과 저장량은 후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6% 적은 32만 3천톤 내외 전망
- 배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3% 적은 14만 7천톤 내외 전망

□ 11월 전망 : 배 가격 지난해보다 하락, 사과·감귤·단감·포도는 상승 전망

- 11월 사과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은 2만 5천~2만 7천원 /10kg 전망, 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2만 8천 ~ 3만원/15kg 전망
- 11월 감귤 가격은 출하량 많으나 품질이 좋아 지난해보다 높은 1,200 ~1,400원/kg 전망
- 11월 단감·포도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각각 8, 7% 높을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1. 0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07)	1주일전 (10/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작물	쌀(일반계)	20kg	32,400	29,000	29,280	37,200	42,153	↓ 12.9	↓ 23.1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2,000	144,400	178,760	↑ 5.3	↓ 15.0
	고구마(밤)	10kg	25,200	25,000	25,600	22,250	21,990	↑ 13.3	↑ 14.6
	감자(수미)	20kg	27,000	26,000	25,000	25,250	24,857	↑ 6.9	↑ 8.6
채소류	배추(가을)	1kg	660	-	-	405	422	↑ 63.0	↑ 56.4
	양배추	10kg	11,400	10,200	10,400	4,000	5,087	↑ 185.0	↑ 124.1
	오이(다다기계통)	10kg	33,667	24,333	31,467	22,667	19,933	↑ 48.5	↑ 68.9
	애호박	8kg	24,600	19,200	26,440	17,650	20,603	↑ 39.4	↑ 19.4
	토마토	10kg	30,200	33,600	38,280	16,950	24,480	↑ 78.2	↑ 23.4
	당근	20kg	56,400	51,000	48,760	27,550	32,797	↑ 104.7	↑ 72.0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4,000	597,600	816,000	914,667	↓ 28.9	↓ 36.6
	풋고추	10kg	71,000	49,000	47,720	28,350	42,580	↑ 150.4	↑ 66.7
	마늘(깐마늘)	20kg	144,000	142,000	140,000	138,000	110,933	↑ 4.3	↑ 29.8
	양파	20kg	19,800	19,600	19,400	30,600	19,920	↓ 35.3	↓ 0.6
	대파	1kg	2,340	2,250	2,366	1,690	1,415	↑ 38.5	↑ 65.4
	파프리카	5kg	21,800	23,600	24,640	13,600	25,000	↑ 60.3	↓ 12.8
	멜론	8kg	28,800	25,000	22,200	18,500	23,479	↑ 55.7	↑ 22.7
	방울토마토	5kg	22,400	26,200	30,880	10,200	13,187	↑ 119.6	↑ 69.9
	수박	1개	12,400	11,600	12,520	7,400	8,693	↑ 67.6	↑ 42.6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800	37,800	-	33,650	40,413	↑ 12.3	↓ 6.5
	배(신고)	15kg	35,400	35,400	37,080	39,800	36,893	↓ 11.1	↓ 4.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07)	1주일전 (10/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3,600	513,600	524,000	530,000	541,933	↓ 3.1	↓ 5.2
	느타리버섯	2kg	15,800	13,800	12,800	12,150	11,750	↑ 30.0	↑ 34.5
	새송이버섯	2kg	9,000	9,400	9,520	8,250	8,057	↑ 9.1	↑ 11.7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82	8,017	7,998	7,791	6,625	↑ 3.7	↑ 22.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24	1,932	1,986	1,810	1,660	↑ 6.3	↑ 15.9
	닭고기	1kg	5,826	5,689	5,359	5,210	5,893	↑ 11.8	↓ 1.1
	계란(특란)	30개	5,650	5,610	5,605	5,616	5,651	↑ 0.6	-
	우유	1리터	2,528	2,525	2,528	2,550	2,455	↓ 0.9	↑ 3.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1. 0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601 천원	5,672 천원	5,788 천원	↓ 1.2	↓ 3.2
	거세	6,341 "	5,898 "	6,688 "	↑ 7.5	↓ 5.1
송아지 (6~7월)	암	2,667 "	2,842 "	2,537 "	↓ 6.1	↑ 5.1
	수	3,169 "	3,403 "	3,138 "	↓ 6.8	↑ 0.9
육우(600Kg)		3,097 "	2,936 "	3,468 "	↑ 5.4	↓ 10.6
젓소수송아지(7일령)		281 "	333 "	312 "	↓ 15.6	↓ 9.9
돼지(110kg)		385 "	339 "	383 "	↓ 13.5	↑ 0.5
육계(원/kg)		1,487 원	1,669 원	1,336 원	↓ 10.9	↑ 11.3
계란(원/특란10개)		1,230 "	1,224 "	1,112 "	↑ 0.4	↑ 10.6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495원/마리 (△154) * (5,658 - 2,332 + 3,169 = 6,495)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2016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 25일까지 수매장 25곳서 5만 3,361가마 매입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3일 율촌면 조화리를 시작으로 2016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시작했다.
-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날 아침 일찍 조화리 매입현장을 찾아 그동안 땀 흘려 수확한 농업인들과 공공비축미곡 매입종사자인 농관원과 농협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 이번 추곡수매는 이달 25일까지 지역 25개 수매장에서 진행되며, 지난해 대비 4,759가마(10%) 늘어난 5만 3,361가마를 매입한다.
- 매입 품종은 새누리·황금누리 2개 품종이다. 가마당(조곡 40kg) 특등 4만 6,480원, 1등 4만 5,000원, 2등 4만 3,000원, 3등 3만 8,270원을 매입 때 우선 지급하고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 사후 정산하게 된다.
- 시는 올해 쌀 생산량을 1만 4,554톤(36만 3,850포대/40kg)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곡수매로 5만 3,361포대(14.7%), 농협자체 수매 14만포대(38.5%), 학교급식(친환경)으로 2만포대(5.5%)가 매입될 전망이다. 또 농가직거래 7만 6,000포대(20.9%), 종자확보 및 농가소비는 7만 4,489포대(20.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여수시



■ 나주시, 농업용미생물 현장에 직접 배달해드려요

- 농업용미생물 6종에 대해 11월 25일까지 신청 받아 직접 배달 -

- 나주시에서는 바쁜 영농철에 친환경 과학영농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업용미생물 6종을 직접 전달해주는 현장배달서비스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읍·면·동별 작목반(회), 공선회, 협회,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관련단체가 신청해서 개별농가로 전달하는데, 신청기한은 11월 25일까지이다.
- 나주시에서는 연간 200톤 생산이 가능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추고, 지난 3월부터 관내 시설채소, 양축, 경종농가에 유상분양(300원/ℓ)을 하고 있으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시는 현장배달서비스를 통해 거리가 멀어 농업미생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농업미생물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배달서비스는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농업단체에서는 배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 339-7491, 7493, 7495)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나주시



■ 곡성군, '체리' 재배 경쟁력 확인

- 지난 2일, 체리 재배기술 교육 실시해 -

- 맛과 기능성이 뛰어난 체리의 국내 소비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산 체리의 생산량이 적어 외국산 체리가 도시 소비자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 최근 실정을 반영해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고품질 체리를 생산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비자의 과일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맛과 편이성이 뛰어난 체리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농가에서 고품질 체리를 생산한다면 수입체리에 맞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2일에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체리 재배농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리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체리동향과 체리 대목 및 품종선택, 초기 과원조성방법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군 관계자는 “체리 식재지원과 재배기술 보급,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체계적인 생산체계를 갖추고 체리를 새로운 소득과수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고흥유자 소비촉진 홍보 판촉 활동나서

- 고흥군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유자 수확기를 맞이해 고흥유자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판촉활동에 들어간다.
- 고흥유자는 비타민C, 카로틴, 칼슘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감기예방과 피로회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겨울철 대표 과일이다.
- 군에 따르면, 유자 소비촉진 일환으로 오는 7일부터 2주간 우리나라 대표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위메이크프라이스)와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프로모션에는 유자 생과와 유자차·유자 크런치·유자즙·유자 엑기스 등 유자 가공식품 등이 판매된다.
- 이 밖에도 △홈쇼핑 방영 △각종 TV 정보 프로그램 노출 △관광 상품과 연계한 유자 체험상품 개발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향우와 자매결연 도시 대상 내수시장 판촉활동 전개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 그리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상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군 경제유통과 박용철 과장은 “고흥유자와 유자차는 타 지역 유자와 확연히 구분되는 맛과 향뿐만 아니라, 지리적표시제와 단체표장으로 품질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앞으로 고흥유자 판매활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만감류 ‘레드향’ 집중 육성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2016년도 농촌진흥청 주관 ‘기후변화 대응 유망과수 재배단지 조성’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총 56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아열대과수 신 소득작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진주)에 따르면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일환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작목 만감류 ‘레드향’을 발굴하여 시범농가 8농가, 2ha 시설재배 도입에 따라 기술지도에 나섰다.
- 특히 레드향의 당도는 14°brix로 달고 과육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껍질이 잘 벗겨지고 소비성향의 변화, 수요 확대 등으로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갖춘 보성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특화작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레드향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보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남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작목 만감류 한라봉을 7농가 3ha, 참다래를 324농가 209ha를 재배하여 연간 105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영광군, 귀농·귀촌인 성공정착을 위한 기초농업 기술교육 추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기초농업 기술교육’을 추진한다.
- 이번 교육은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주 2회 (수,금)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우리군 문화, 역사와 귀농·귀촌 성공정착사례, 기능성 특새작물별 재배기술, 부가가치 창출과 마케팅 전략 등 성공적인 귀농 창업을 위한 신규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농업 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신청 접수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영광군 신규 귀농·귀촌인 및 다른 교육 미 이수자 우선으로 주민등록증, 농지원부 (귀농인의 경우),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신규 귀농·귀촌인들에게 기초 농업 기술 교육은 물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촌의 활력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061-350-4832)

* 출처 : 영광군



■ 완도군, 고금면 친환경 유자 맛과 향 탁월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격적인 유자 수확기를 맞아 고금면 유자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 군은 적기 수확과 규격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특산 과수인 유자의 브랜드화와 판매촉진을 위해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특히 고금면에서 생산하는 유자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실천한 친환경 재배와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명품유자로 인기가 많다.
- 안환옥 고금면장은 “고금유자를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개발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금면 320호 농가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연간 2,000톤으로 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 유자 가격은 kg당 1,500원 정도로 예상되며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다.

* 출처 : 완도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삼진지에프 ‘캔김치’ 중국 수출길 올랐다

- 국내업체 중 최초로 중국 소매시장에 캔김치 7만 2천캔 수출 -

- (주)삼진지에프(대표 허귀호)가 중국 산둥성의 구일무역과 캔김치 72,000캔 수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 소매시장 공략을 위하여 11월 3일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 수출 캔김치 선적 현장에 참석한 채진광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중국 소매시장 판매를 위한 캔김치 수출로는 국내업체 중 최초로 의미가 깊다”며 “이번 캔김치 수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중국 김치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삼진지에프는 1974년 설립돼 복숭아 캔 등을 생산 수출하던 업체로 현재는 김치(캔, 절임), 소스류, 조미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븐일레븐그룹, 미국의 비비큐 소스, 대만 등에 김치와 소스류 등을 수출하여 매출의 90%를 수출에서 거두고 있는 수출전문 식품기업이다. * 출처 : 나주시



■ 충남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 활기

- 서산 양배추·6쪽마늘 및 천안 배추 등 일본·대만시장 연이어 수출 -
- 서산시에 따르면 240톤 규모의 서산 양배추와 6쪽마늘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각각 대만과 일본에 수출됐다.
 - 이번 수출은 지난해부터 서산시와 긴밀한 협력적 우호관계를 맺어 온 인천신선채소협동조합과 대만 수입업체 부림교역이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이뤄졌다. 양배추의 경우,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이점 덕분에 대만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 또 서산·태안 6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은 21일 나리무역을 통해 6쪽마늘 500kg을 일본 오사카지역으로 보냈다. 서산 6쪽마늘은 맛과 향이 독특하고 항균 효과가 탁월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 일부 농가들이 시험재배 중인 일명 코끼리마늘(점보마늘) 100kg도 6쪽마늘과 함께 일본으로 공급됐다. 코끼리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2~3배 이상 크고, 굵거나 조리하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 가공용이나 조리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 천안 노지배추도 대만시장에 진출했다. 천안시 성환읍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주)에이치 썬파머스는 10월 27일 입장면 가산리 농장에서 현장 수확 및 선별을 거친 약 31톤(약 2,400만원 상당)의 배추를 선적했으며, 연내 190톤(1억 3,000만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동계 애호박 수경재배에 적합한 질산태 질소 농도

개발기술 내용

- 일평균누적광량이 낮게 유지되는 11~2월에는 관행조성에서 질산태 질소를 30% 낮은 개선조성을 사용하고, 광량이 늘어나는 2월 이후에는 관행조성을 사용하면 동절기 46, 춘계 9.7% 수량 증수 가능

【질산태질소 농도별 상품수량】

질산태질소 농도	수확과수 (개/주)	총과중 (g/주)	상품과율 (%)	상품수량(kg/10a)		
				동 계	춘 계	총 수량
질소50%	14.5	4,113 b ^Z	91.7	1,188	6,352	7,540 b
질소70%	13.9	4,015 b	94.6	1,027	6,565	7,593 b
질소100%	14.7	4,368 a	91.8	812	7,205	8,017 a

^ZDMRT 5%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토양염류, 병해충 등 연작장해 발생단지 수경재배 시 동계 양액조성 방법 보급으로 안정생산 도모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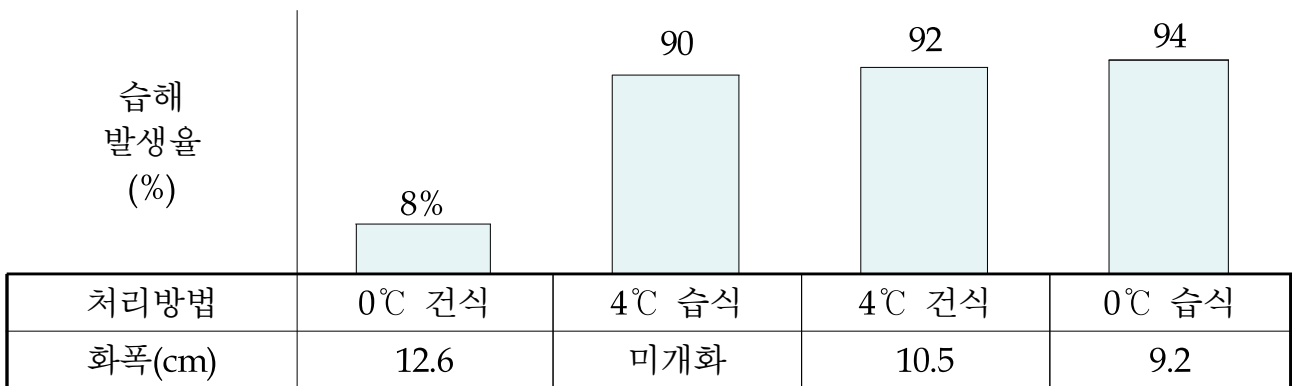
- 수량증수 : 26% (855 → 718kg/10a)
- 소득향상 : 1,475천원/10a 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장기 저장 방법

□ 개발기술 내용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온도 0℃, 건식에서 2개월 장기 보관 가능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습식저장 20일 경과 후 습해가 발생하여 장기 저장에 부적합함
- 절화 작약의 저장 방법에 따른 저장 2개월 후 부패 발생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절화 작약 재배농가 및 농업기술센터에 수확 후 관리 자료제공
- 절화용 작약 수확 후 관리 매뉴얼 제작을 통한 개발 기술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절화작약의 수확, 선별, 출하 노동력의 분산
- 절화작약의 저장과 출하 기간 40일 증가 및 습해 82% 감소
- 절화작약 생산기간 중 본당 평균 수취가 증가 : 500원/본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 NB와 PB사과의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수취가격 비교

□ 개발기술 내용

- 수취가격은 NB 4,551원(65%), PB 직거래 4,144원(52.5%)로 NB가 높음
- 유통비용은 NB 2,449원(35%), PB 직거래 3,576원(47.5%)로 NB가 낮음

(단위 : kg당/원, %)



항 목	수취가격		유통비용		소비자판매가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NB(도매시장)	4,551	65.0	2,449	35.0	7,000	47.0
PB 직거래	4,144	52.5	3,756	47.5	7,900	53.0

* 자료출처 : PB 과일류(사과) 거래 산지경영체 25호를 대상으로 2014. 1~8월 까지 유통경로별 비용조사 분석결과 임

주) NB사과는 산지경영체가 도매시장으로 출하, PB 직거래는 산지경영체와 대형 마트의 직거래임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사과 NB와 PB의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수취가격 비교 정보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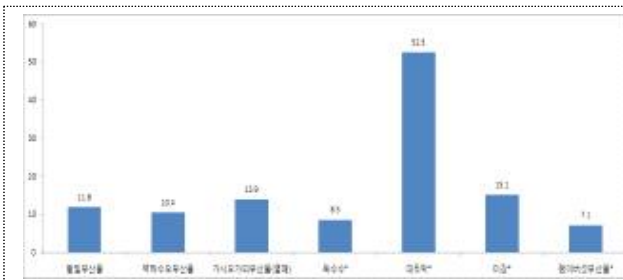
- 산지경영체의 NB와 PB사과의 유통경로별 가격 경쟁력 분석으로 출하 시장 대응능력 제고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황인택

■ 약용식물 부산물의 사료가치 및 항산화 특성

□ 개발기술 내용

- 조단백 함량이 팽이버섯부산물에 비해 황칠 부산물 4.7, 백하수오 부산물 3.3, 가시오가피 부산물(열매) 6.8% 많이 함유함



【약용식물 부산물 조단백질 함량(%)】

【약용식물 부산물】

* 자료출처 :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건물기준

- 황칠부산물, 편백부산물 및 백련초부산물 식물유래 천연 항산화제로 활용 가능 예측
 - 식물체의 항산화 활성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인 총페놀은 시료 1g당 편백부산물 19, 백련초부산물 15.6, 황칠부산물 13.9mg 함유, 총 플라보노이드는 황칠부산물 46.7, 편백부산물 36.4, 백련초부산물 32.5mg 함유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약용식물 부산물 이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생리활성이 우수한 약용식물 부산물을 가축에게 급여하여 면역력 증강 및 약용식물 부산물 자원화 등에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이숙경, 김상욱



■ 전남농기원, 연구사 2명 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 신품종 우강우슬 육성 및 벼 무논점파재배 제초노력 절감효과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여수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약용작물학회와 한국잡초학회 학술대회에서 김명석, 민현경 연구사가 발표한 논문이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 김명석 연구사가 한국약용작물학회에서 수상한 논문은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 우강 우슬”로 국산 약초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생약재 안정생산을 위하여 약효성분이 높은 토종 약초 우슬 ‘우강’을 국내 최초로 육성한 내용이다.
- 우슬은 주로 신경통 한약재로 소비량이 증가 추세이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약 80% 이상 수입되고 있고 채종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종자 확보 및 재배면적 확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종자 안정생산 재배법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우슬 ‘우강’은 종실의 크기가 균일하고 무거워 종자 생산량이 재래종보다 35%가 많아 종자 보급에도 매우 유리하고 뿌리 생산량도 20% 높아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뿌리에는 신경통의 약효성분인 엑디스테로이드 함량이 14% 정도 많아 생약재로 이용하기에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 또한 민현경 연구사가 한국잡초학회에서 수상한 논문은 “벼 무논 점파재배 파종시기별 피 엽령 변이 및 제초제 처리시기 설정”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연평균기온이 상승됨에 따른 벼농사 문제잡초 피의 발생시기와 엽령진전 속도를 밝혀 제초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으로 농가에서도 손쉽게 적용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다.



- 무논점과재배는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전남지역에서 5,712ha(2016년)정도 재배되고 있으나 담수직과와는 달리 정지작업 후에 5~7일 정도 논을 굳혀야 하기 때문에 잡초 방제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직과재배의 잡초방제 시기는 화분과 잡초 '피'의 엽수가 3.0엽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피의 엽수는 지역별로 뻗씨 과종시기와 정지작업 시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초제 처리시기도 달라져야 한다.
- 전남지역 무논점과재배의 제초제 처리시기는 뻗씨 과종시기에 따라 관행보다 3~6일 정도 앞당겨 처리해야 피를 포함한 기타 잡초까지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도 특허기술 청년사업가에 기술이전 협약체결

- 버려지는 양파껍질, 고부가가치 산업화 길 열어 -

- 전남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연구개발한 특허기술을 2세대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주)해봉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이전한 특허기술은 양파 껍질로부터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퀘세틴 추출과 정제기술, 퀘세틴 추출물을 이용한 타블렛 제조법에 관한 기술로 양파의 기능성 성분을 소재로 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사료첨가제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파는 건강, 장수식품으로 다양한 음식 재료로 널리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양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퀘세틴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소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퀘세틴 성분은 양파 속보다는 주로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동안 양파 세척, 가공 전처리 과정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톤 당 1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하였지만 이번 특허기술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1석 3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은 (주) 해봉 박경담 청년사업가는 특허기술 산업화를 통해 그동안 농산물 단순 가공과 유통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산업체로 확대 발전시켜 농업과 농촌에서 직업을 찾고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가의 모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성과 특특

- 토마토·한우·오리 등 4개 협력단 추진성과 발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자가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에서 육성하는 지역 전략품목은 토마토·한우·오리·쌀이며 대학교수, 선도농업인, 농업 관련산업체 등 155명의 기술전문위원이 일선현장에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이정현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토마토산학연협력단은 ICT 복합환경 제어기술 지원으로 토마토 품질 10~20% 향상과 생산비 20%를 절감하고, 관광과 체험을 융합할 수 있는 팜파티 마케팅, 토마토 글로벌 GAP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한우산학연협력단은 한우농가 생산비의 56%를 차지하는 사료비 감소대책으로 농식품 부산물 및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사료비를 31% 절감하는 등 생산비 절감 방안을 농가에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 또한, 오리산학연협력단에서는 오리사 악취저감을 위한 복합생균제 개발품 농가보급 및 유용곤충 기반 오리전용 사료개발과 농가 실증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쌀산학연협력단에서는 쌀소비 감소와 과잉생산에 따른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시어린이 모내기 체험, 쌀면 파스타, 비타민 부원료 등 가공품 개발, 2016년 국제뿌리산업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식물성 에스트로겐 고함유 콩잎 생산기술 개발

- 기능성 식의약 소재 및 실용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

- 최근 생물의 기능성 물질의 대사경로를 이용해 작물의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기대돼 농업분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 대사체 생산 농업(metabolite farming)은 농산물의 주요 활성물질의 함량을 높여 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농법으로,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건강 유지를 위한 대표적인 호르몬이며 중년 이후에 급속히 감소해 다양한 대사성 및 갱년기 질환, 피부노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상 개선을 위해 에스트로겐 호르몬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 우려로 인해 대체제로 이소플라본과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Phytoestrogen)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단장 이상열)과 농림수산물기술키획평가원(원장 이상길)의 지원으로 경상대학교(총장 이상경) 박기훈 교수팀이 일반콩잎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콩잎(이하 : 파바톤 콩잎)의 재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 일반 콩 파종 뒤 50~60일경에 에틸렌 혹은 에테폰의 처리로 콩잎의 이소플라본 함량을 극대화하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효능을 밝혀 그 결과를 농업 및 식품소재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2016 Multidisciplinary Agriculture 분야 순위 1위, mrrIF 91.39)인 J. Agr. Food Chem.에 게재했다.
- 파바톤 콩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체 중에서 최고 수준의 식물성 에스트로젠(식약처가 허가한 식물성 에스트로젠 기준)을 함유(콩잎 10~13mg/g)해 일반 콩(0.4~2.3mg/g)보다 5배 이상 높아 이를 특허 출원했다.
- 파바톤 콩잎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60일 이내의 짧은 재배기간으로 2~3모작이 가능하고 돌려짓기 혹은 휴경지 등에 이용 가능하며 고부가 기능성 소재로 실용화 개발 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 경상대학교 박기훈 교수 연구팀이 갱년기 동물모델을 이용해 파바톤 콩잎의 효능을 확인한 결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증명됐다.
- 갱년기 동물 모델에서 지방생성 및 뼈 건강 등을 측정했을 때 복부, 내장 및 간 지방 축적 억제 효과가 탁월했으며 골밀도 및 조골세포의 기능향상과 콜라겐 합성도 정상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 또한 기능성 유리아미노산인 아르기닌, 아스파라긴, 가바 등도 높은 농도(60 mg/g, 시금치의 3배 정도)로 존재해 기능적인 면에서 보다 강화된 갱년기 증상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민채소의 이유 있는 변신! 기능성 배추와 컬러 무 개발

- 김장철을 앞두고 기능성분이 풍부한 배추와 색깔이 든 무 등 다양한 배추·무 품종을 개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더위에도 잘 자라는 배추 품종과 기능성분(글루코시놀레이트)이 풍부한 배추 품종, 분홍·녹색 무 품종 등에 대한 현장품평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배추는 덥고 습한 조건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지만, 속잎색이 노랗고 더위에도 잘 자라는 개체를 선발한 뒤 그 소포자를 배양해 ‘원교 20048호’를 개발했다. 이 품종은 더위에 강하고, 침수 피해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지녔다.
- 배추는 일반적으로 지상부를 ‘배추김치’ 형태로 활용하는데, 지상부와 지하부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배추 ‘원교20049호’도 개발했다. 이 품종은 일반 배추보다 잎줄기가 좁고 길며, 뿌리는 무처럼 크게 형성된다.



- 특히 기능성분이 함유돼 잎에 씹쌀한 맛이 강해 지상부는 갓김치의 형태로, 지하부는 석박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특징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김치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처럼 가공이 쉬운 막김치에 적합한 품종도 개발해 품평회에서 종자회사의 육종가와 김치공장의 가공담당자에게 선보였다.
- 무는 껍질과 근육색이 진한 녹색, 분홍색으로 생채, 숙채, 무침 등으로 만들었을 때 색감이 좋은 품종을 개발했다. 단맛은 강하고 매운 맛이 적어 생으로 먹기에도 좋다.
- 무 새 품종 '원교10053호'는 껍질과 속색이 진한 녹색이며 당도도 높아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 또한 지난해 개발한 적색무 '원교10050호'와 함께 색감이 좋은 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 또한 무 머리 부분까지 하얗고 뿌리가 긴 품종, 채종이 쉬운 자원 등을 종자회사와 유통회사 등에 선보여 앞으로 우수한 자원을 공동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 이번 품종개발로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속에서 국민 먹거리인 배추와 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식품인 김치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벼멸구 저항성 유전자 BPH18 밝혀

- 벼멸구 저항성 품종 육성 등 분자유종 활용에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벼의 주요 해충인 벼멸구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BPH18 유전자'를 벼에서 확인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BPH18 유전자는 국제 벼연구소(IRRI)에서 육성한 벼멸구 저항성 계통과 우리나라 벼 품종인 주남벼를 교배해 얻은 후대 집단에서 유전자 분리 기술 등을 이용해 확인한 것이다.
- 이를 위해 후대 집단의 정밀 유전지도를 작성하고 분석을 통해 BPH18 유전자가 벼 12번 염색체 약 22.9Mb 지점의 약 27kb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 그리고 이 유전자를 벼 품종인 동진벼에서 확인한 결과, 벼멸구 저항성을 보임으로써 벼멸구 저항성 유전자임을 구명했다.
- 이번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필리핀 국제 벼연구소(IRRI), 경희대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룬 성과이며, 지난 9월 국제적인 학술지인 '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 한편, 흡즙성 해충인 벼멸구는 벼 포기의 아랫부분에 밀집해 서식하면서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영양물질을 빨아먹어 벼를 말라 죽게 한다. 해마다 6월 중·하순부터 7월말까지 중국 남부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을 타고 날아와 수확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지현소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관련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벼멸구 저항성 선발마커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된 마커가 앞으로 벼멸구 저항성 품종 육성을 앞당기는 분자유종에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한번 뿌리면 3~4개월 효과 지속! 펠릿형 미생물제 개발

- 비료 뿌리는 시간·비용·노동력 대폭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공주대와 공동으로 작물 면역 증진 미생물인 '바실러스 발리스모티스 BS07M' 균주를 이용해 펠릿형 입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제는 나노기술을 이용해 미생물을 점토에 부착해 약 1cm 크기의 펠릿 형태로 만든 것으로, 토양에 뿌리면 3~4개월 동안 천천히 녹으면서 오랫동안 효과를 낼 수 있다.
- 기존 분말 형태의 수화제는 물에 섞어 분무기 등을 이용해 3회 정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 하지만 펠릿형 입제는 육묘상토에 한번만 섞어주면 수확기까지 효과가 유지돼 별도의 시간과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또한 비용도 수화제 사용 시보다 20~36% 가량 줄일 수 있다.
- 10a 규모의 배추밭에 수화제를 사용할 경우 3회 처리 시 대략 7만 5,000원 정도 들지만, 펠릿형을 사용하면 4만 8,000원~6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 생육 및 병 방제효과도 우수하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서 실험한 결과, 펠릿형 미생물제를 준 배추가 주지 않은 배추보다 잘 자라 무게가 27.5% 늘면서 상품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펠릿형 미생물제를 준 배추에서 뿌리혹병은 41.4, 무름병은 42.9%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펠릿형 미생물제 제조방법을 산업체에 이전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실용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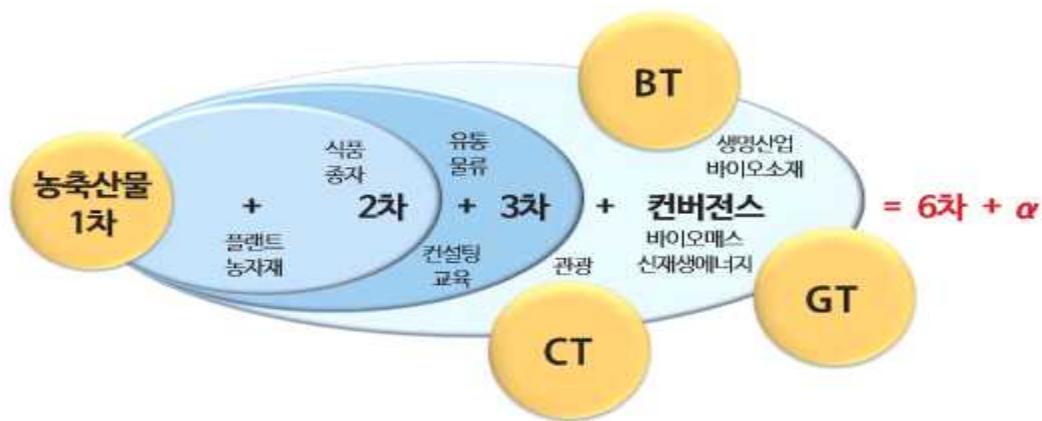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8.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스마트농업전문가

□ 어떤 일을 하나요?

- 스마트농업전문가는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영역에서 정보통신(IC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합니다.
- 최근 스마트농업의 경향은 유비쿼터스 센터 네트워크(USN), 토양 및 기상센터와 환경제어 기술,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 전자태그(RFID),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S/W와 H/W 모든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IT 접목)〉

자료 :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ICT산업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인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62%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ICT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 ICT 관련 학과는 전문대 1,452, 4년제 2,243개가 있으며 취업률은 전문대 50.3, 4년제 48.2%로 전문대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 ICT계열이 ICT관련 계열보다 학과 수는 적으나 취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열		전문대		4년제	
		학과수	취업률	학과수	취업률
ICT계열	사회계열	40	39.6	190	44.6
	공학계열	713	55.2	1,007	51.6
	소계	753	54.6	1,197	50.5
ICT관련 계열	사회계열	122	51.4	112	51.9
	교육계열	2	-	44	63.4
	공학계열	73	64.9	213	57.7
	자연계열	-	-	160	35.7
	예체능계열	502	42.3	517	40.7
	소계	699	45.6	1,046	44.8
합계		1,452	50.3	2,243	48.2

자료 : 2015 ICT 인력동향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2015)

참고

해외의 스마트농업 사례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그레놀라 - 스마트파밍(Smart Farming)]
스마트파밍이란 농작물 수확률이나 토양지도, 날씨, 가축 건강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14년 그레놀라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농업인을 위한 협력 도구 개발을 기반으로 창업했습니다. 핵심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물과 비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토양을 관리해주는 기술입니다.



〈드론을 통한 작물의 환경정보 수집〉



〈영농계획 수립-전산시스템〉

* 출처 : 농촌진흥청

9. 정책 동향

◆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사료용 쌀 공급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사료용 쌀 공급을 올해보다 확대하고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에 공급되는 사료용 쌀은 '13년산으로써 물량은 약 24만톤(현미 기준)이며,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와 같이 파쇄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11월 중 내년에 공급될 사료용 쌀 공급가격을 확정하여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공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부정유통 차단 등 사후관리를 위해 내년에도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한해 공급
-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생산 과잉에 따른 시장격리곡 매입으로 정부양곡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반면, 쌀 소비는 감소 추세여서 재고쌀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오래된 묵은 쌀을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 수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료용 쌀 추가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료용 쌀이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전국 최다

- 가뭄, 수발아,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가 소득안정 기대 -
- 전남도는 올해 가뭄과 수발아에 이어 수확기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70억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8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과 별개로 전남도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지원 기준 면적은 0.1ha(300평) 이상부터 최대 2ha(6천평)까지다.
- 전남지역 벼 재배 면적은 16만 6천ha로 지난해(17만ha)보다 2.2% (3천 741ha)주었고, 농가 인구는 31만 9천여명으로 지난해(35만 6천여명)보다 10%(3만 7천여명) 주는 등 매년 감소 추세다.
- 최근 5년간 벼 재배면적과 농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금은 상향되고 있다. 2011년 농가당 39만원, ha당 44만원을 지급했고, 2015년 농가당 51만원, ha당 57만원으로 늘었다.
-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전남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지난 2001년 18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6천 270억원을 지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서울국제식품산업전서 전남 농식품 우수성 알려

- 전남도, 발효식품전남쌀 홍보관 운영농식품 기업 참가 지원 -
- 전라남도가 오는 5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FOODWEEK 2016)'에서 지역 우수 농식품, 6차산업인증제품, 전통발효식품, 전남쌀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Variety of Tastes'라는 부제로 전국에形形色색의 맛을 선보이고 식품 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 전라남도는 '남도식 발효식품 홍보관'을 운영해 신광수 명인의 작설차, 기순도 전통장, 김영숙 복령떡, 양대수 추성주 등 식품명인 제품과 맑은 물로 빚은 전통술 등을 포함, 총 30개 사, 74개 품목을 공동 홍보했다.
- 전남쌀의 우수성과 판로 확대를 위해 '맛 좋은 전남쌀 오감만족! 재미가 건강이다'라는 주제로 떡메치기, 인절미, 절편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운영됐다.
- 또 도지사 품질인증, 6차산업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우수한 전남의 농식품 31개 사의 참가비를 지원해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 현재 6차산업 인증경영체 12개 사는 11번가, 쿠팡 등 구매상담(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주 좋은영농조합법인, 고흥 이레빛, 담양 호정식품 등도 박람회 기간 동안 바이어 상담이 진행된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깨끗한 비, 햇볕, 바람으로 천천히 발효된 남도전통식품과 전남쌀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널리 알리겠다"며 "이번에 참가한 전남의 우수한 제품들도 구매약정과 판매까지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 김장전망 : 김장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하나 적정수준에서 유지

○ 김장배추 공급량 감소(지난해대비 △14%)로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으나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정가격 수준일 것으로 전망

○ 다만, 11월 하순~12월 상순에 김장이 집중되고, 11월 하순 본격 출하되는 주요 주산지(해남) 작황이 부진하여 일시적 가격상승 가능성

※ 김장무도 지난해보다 상승하나 적정수준 유지, 건고추는 재고량이 많아 가격하락, 마늘은 생산량 부족으로 지난해 수준 유지 전망

□ 주요대책 : 수급 관련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자율적 수급조정 지원, 비축물량 등 김장성수기 집중공급, 김장비용 절감 대책 등 추진

○ (정보제공) 지역별 작황가격 동향,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무차별하게 제공하여 경제 주체의 합리적 판단을 통한 시장의 자율 수급조절 지원

○ (공급안정) 상시비축 및 출하안정제(계약재배) 물량 62.5천톤 확보하고, 김장 성수기 집중 공급을 통해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응

○ (김장비용절감)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 100개소, 공영홈쇼핑 판매, 비축물량 직거래 등을 통해 소비자 김장비용 절감 추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0. 해외 농업정보

◆ 베트남, 농기계시장 현황

- 베트남 정부가 고시한 Decision 1342/QD-TTg(이하 Decision 1342)에 따르면 베트남 농기계 시장에서 베트남산 농기계 시장 점유율은 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수입산 제품들이 차지함
- 베트남의 농기계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일본·한국·대만 등임. 외국계 농기계 기업은 현지 대리점 확장 및 판매 지원금(커미션) 제공 등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중국산 농기계가 저렴한 가격, 국경 무역의 이점(통관절차 간소, 물류비 절감 등) 등을 활용해 베트남 농기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였음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ITC)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중국산 농기계 및 부품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약 63%임. 일부 수입업자들은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을 수입한 후 현지에서 조립해 판매하기도 함
- 베트남에도 트랙터, 경운기, 트랙터를 비롯한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생산량이 적어 시장 점유율이 낮으며 전문성도 부족함. 베트남 현지 농기계 기업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 여력이 없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베트남 영농인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
- 대표적인 베트남 농기계 제조 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의 VEAM(Vietnam Engine and Agriculture Machinery Corp)이며, 국영 기업이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이 낮음

- 또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는 대부분 저용량 엔진 제품이며, 현지 수요가 높은 이앙기 및 수확기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부품·소재 산업의 부재 역시 현지 농기계 제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
- 베트남 정부의 Decision 1342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 부문에서 토양 준비 작업 기계화율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경작 및 시비 단계는 25%, 수확 및 가공단계는 30%에 불과했음. 이는 베트남에서 농기계가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냄
- 베트남의 농업 기계화율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3모작을 하는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Mekong delta) 지역에서 수확용 농기계인 콤팩트 사용이 보편적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농기계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음
- 베트남 내 농기계 사용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경작 가능 지역이 좁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이 낮기 때문임. 베트남의 농업 종사자는 값비싼 신제품보다는 내구성이 좋은 중고 농기계 구매를 선호하기도 함. 베트남 정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출 이자 할인, 농업 기술 훈련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 베트남이 수입한 주요 농기계 품목은 수확 및 탈곡용 기기(HS Code 8433류),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8437류), 트랙터(8701류) 등임
- 수확 및 탈곡용 기기(HS Code 8433류)는 베트남 농기계 수입액 중 약 34%를 차지했으며, 주로 중국(44%)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 제품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함(ITC 통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필리핀, 건강식품 수요 증가

- 2015년 필리핀의 건강식품 판매 규모는 지난해대비 5.8% 상승하였음. OTC(Over The Counter,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약품)는 필리핀의 건강식품 산업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임.
- 2015년 OTC의 판매액은 지난해대비 3.8% 상승한 6억 3,000만달러를 기록함. 2015년 비타민/식이보조식품의 판매액은 4억 3,800만달러, 어린이 건강식품은 2억 100만달러, Herbal/전통식품은 1억 5,9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음
-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최근 5년간 평균 6%, 2016년 상반기 7%에 달함. GDP가 성장함에 따라 필리핀 소비자의 제약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필리핀인의 해외 근로 증가, 외국 기업의 현지 인력고용으로 필리핀에 외화가 증가하였음. 또한, 최근 2년간 저유가로 인해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2년간 물가상승률 1.5%)도 필리핀 소비자의 구매력 강화되었음
-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증감함에 따라 필리핀인의 식단이 육류 위주로 변화하였음. 필리핀의 서구형 비만 및 성인병 발병률 증가는 건강식품 및 약품의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켰음
- 필리핀 중상위층이 건강을 위해 약초, 전통, 유기농 식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관련 제품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필리핀의 건강식품 판매 경로는 주로 인터넷임. 건강식품 판매업체는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필리핀 제1의 인터넷 쇼핑몰인 라자다(lazada)는 건강식품의 온라인 주요 공급처로 자리 잡았음. 필리핀인의 페이스북 사용 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전 세계 1위임
- 2010년 이전까지 건강식품은 주로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95% 이상)으로 판매됐으나 매년 점포를 통한 건강식품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음. 2011년, 건강식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5.2%를 돌파했으며, 2017년 10%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의 건강식품 판매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스포츠 영양제 및 체중관리 식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유지할 것임.
- GDP 증가 외에도 기대수명 증가가 필리핀 건강식품 시장 성장의 잠재적 요인임. 필리핀의 기대수명은 2000년 이후 70세를 넘어섰으며 2020년 75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바이어들은 주로 한국의 홍삼(인삼) 식품 및 기능성 식품에 관심을 보임. 그러나 한국 건강식품은 주로 내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제품라벨 등이 한국어로 표기되어 바이어의 관심을 끌지 못함. 필리핀으로 수출을 원하는 한국 건강식품 기업은 영문 라벨을 따로 제작하고 홍보해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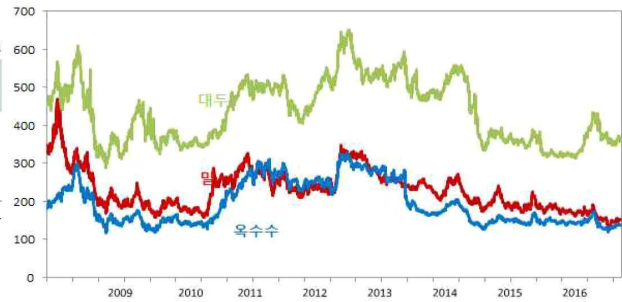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1. 07.(시카고 선물거래소)

미(美) 대선 및 USDA 월간 수급 보고서에 앞서 상승한 곡물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1.04)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0)	2015 평균
밀	152.19	▲0.5%	150	186
옥수수	137.24	▲0.2%	138	148
대두	363.98	▲1.1%	359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미국 대선에 앞서 포지션 스캐어링으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하였음. 애널리스트들은 USDA의 11월 월간 수급보고서에서 밀 기말재고량 추정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집트의 공급부는 정부가 2017시즌 국내 밀을 150kg 당 \$30에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 이집트 정부는 IMF로부터 12억 달러를 대출할 것으로 보임.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이번 주 있을 미국 대선 및 USDA의 월간 수급 보고서 발표에 앞서 투자자금매수로 상승하였음. 애널리스트들은 USDA가 이번 월간 수급보고서에서 옥수수 생산 전망치를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중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 또한 7월 중순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이는 정부의 보조금이 소비를 촉진하고 넘쳐나는 국가 재고량을 소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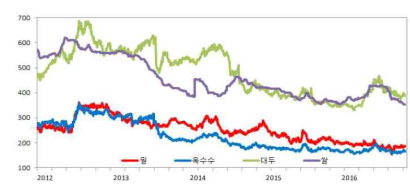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 또한 이번 주 있을 미국 대선에 앞선 투자자금매수로 상승 마감하였음. 애널리스트들은 USDA가 이번 월간 수급보고서에서 대두 생산량을 더 높게 측정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은 두 번의 연이은 winning session 이후 하락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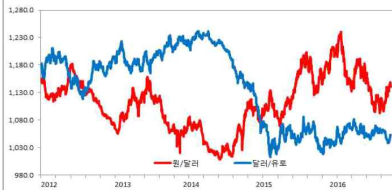
관련동향

- 걸프 만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미국의 풍작 예상에 따른 새로운 공급으로 압력을 받았으나 중국의 수요가 지속되며 지지를 받음.
- 4일 국제유가는 OPEC 감산 합의 난항,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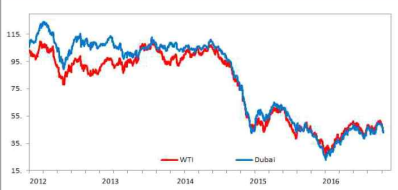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6	▼1.1%	환율	원/달러	1,140.6	▼0.7%
	옥수수	167	▲0.6%		달러/유로	1.1105	▲0.1%
	대두	386	-	국제유가	WTI	44.07	▼1.3%
	쌀	353	-		Dubai	42.84	▼1.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1.03(수출가격), '16.11.04(환율), '16.11.0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해피굿팜 운영 확대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해피굿팜 운영교육을 10월 31일(월)에 실시하였다. 해피굿팜은 전남농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쇼핑몰(shop.goodfarm.net)로 개별적으로 농장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180호의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2016년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한 농가 50명을 발굴하였다.
- 새롭게 참여하는 농업인 50명은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마무리하여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쇼핑몰에 농식품을 등록하는 방법, 배송과정 조회, 고객관리 기술 등이다.
- 전남농기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박사는 “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으면 농산물 직거래 시장 확대가 어렵다고”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하는 농식품 판촉전 및 팜파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복잡한 소의 유전자, 과학의 눈으로 보여드려요

- 동물 유전체 정보 11,730개 추가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생명분야 유전체정보 시스템인 국립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이하 나빅)에 동물 분야의 유전체 정보를 확장해 제공한다.
- 현재 나빅 포털시스템의 동물 분야는 소·돼지·닭·염소·개의 DNA 유전정보인 유전체(Genome)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소의 유전자 네트워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 등을 통해 가시화한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한다.
-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반응한다. 이러한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전자 네트워크’ 라고 한다.
-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이미 밝혀진 이웃 유전자들의 기능을 통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 이번 ‘소 유전체 네트워크 가시화 시스템’은 3만여 유전자의 102개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와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 결과,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내학술지 ‘한국생명과학회지’에 소개했으며, 특히, 소의 마블링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법은 국제학술지 ‘국제생물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에 실렸다.
- 소 유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은 ‘나빅(nongup.gg.go.kr - Research→Animal→Cow→Bovine Gene Network)’ 누리집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109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